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74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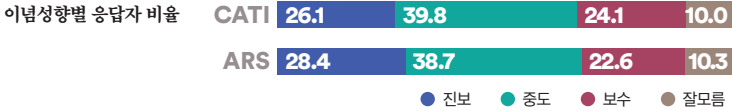
제89차 ARS조사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 CATI & ARS



###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4	50.3	494	49.3	0.98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498	49.7	508	50.7	1.02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6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18-29세	162	16.2	158	15.8	0.97
응답률	13.3% [총 통화시도 7,560명]			30대	150	15.0	149	14.9	0.99
조사기간	2024년 7월 5일 ~ 7월 6일(2일간)			40대	178	17.8	177	17.7	0.99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5	19.5	197	19.7	1.01
				60대	170	17.0	174	17.4	1.02
			연령	70세 이상	147	14.7	147	14.7	1.00
				서울	189	18.9	188	18.8	0.99
				인천·경기	317	31.6	321	32.0	1.01
				대전·세종·충청	105	10.5	107	10.7	1.01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9	9.9	97	9.7	0.97
				부산·울산·경남	151	15.1	149	14.9	0.98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성별

지역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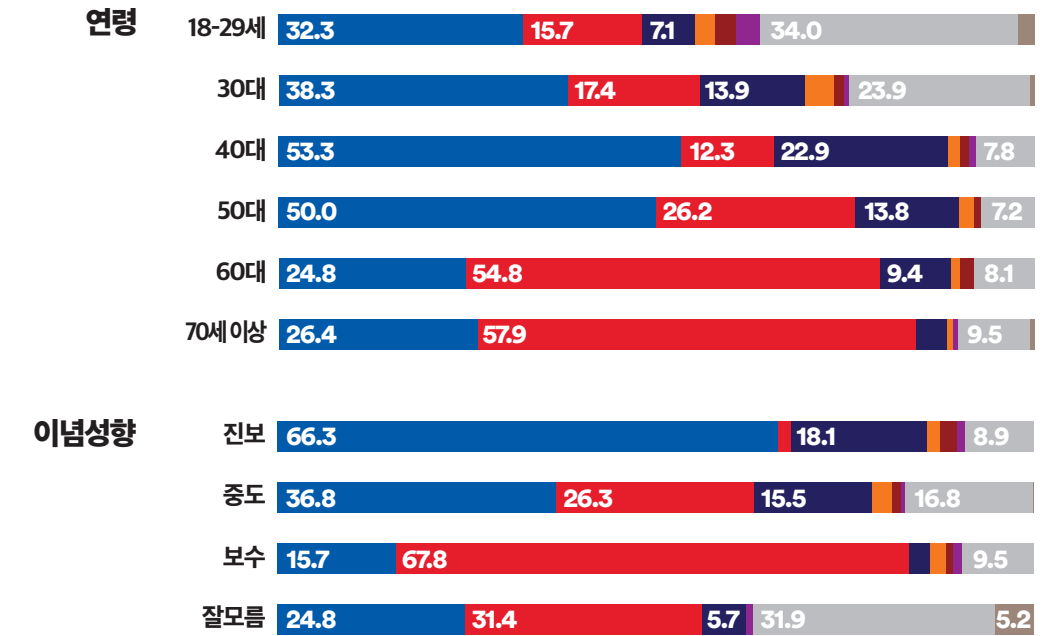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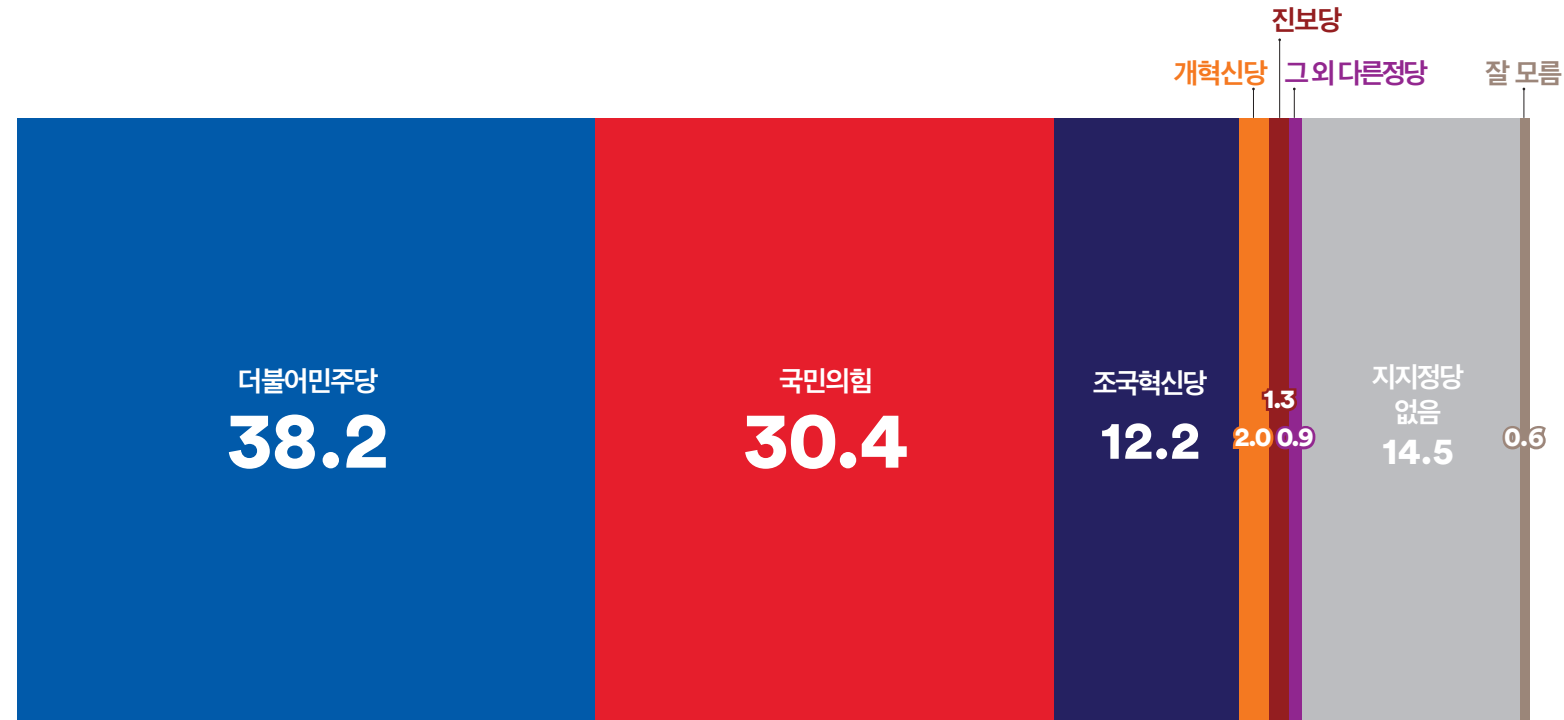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0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29	52.9	494	49.4	0.93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1	47.1	506	50.6	1.07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6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18-29세	108	10.8	158	15.8	1.46
응답률	2.1% [총 통화시도 46,842명]			30대	146	14.6	149	14.9	1.02
조사기간	2024년 7월 5일 ~ 7월 6일(2일간)			40대	190	19.0	177	17.7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3	21.3	197	19.7	0.92
				60대	188	18.8	173	17.3	0.92
			연령	70세 이상	155	15.5	146	14.6	0.94
				서울	192	19.2	188	18.8	0.97
				인천·경기	323	32.3	320	32.0	0.99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6	10.6	0.99
				광주·전라	90	9.0	98	9.8	1.08
				대구·경북	101	10.1	97	9.7	0.96
				부산·울산·경남	146	14.6	149	14.9	1.02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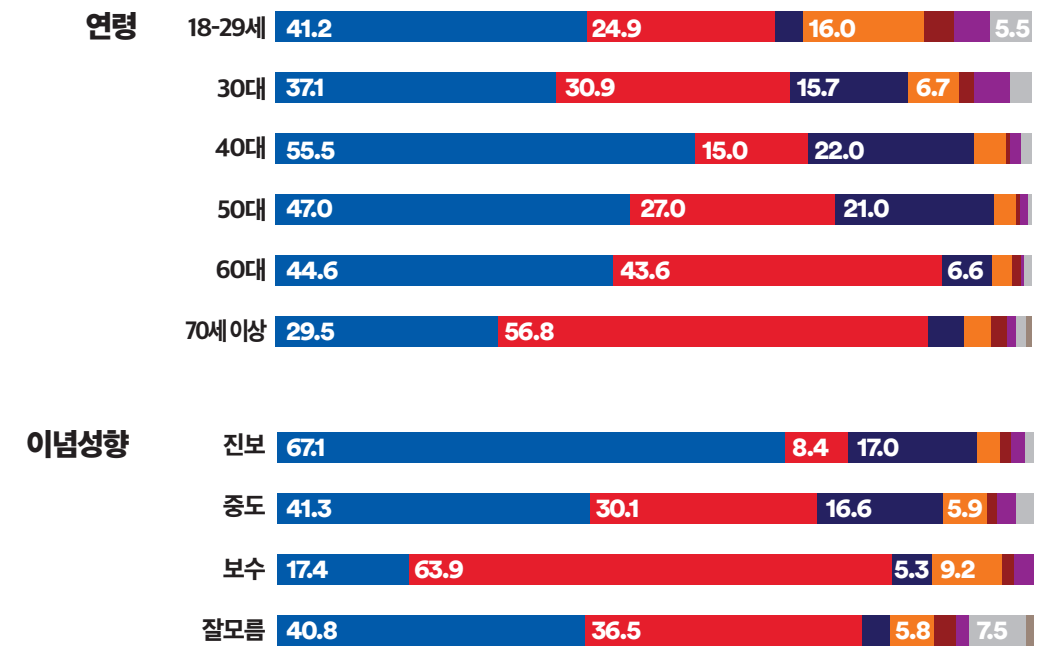
지역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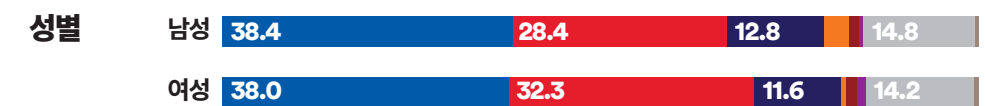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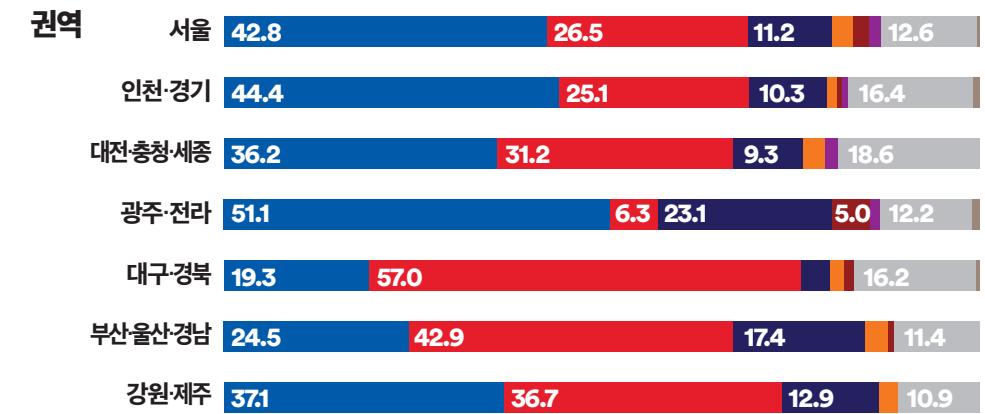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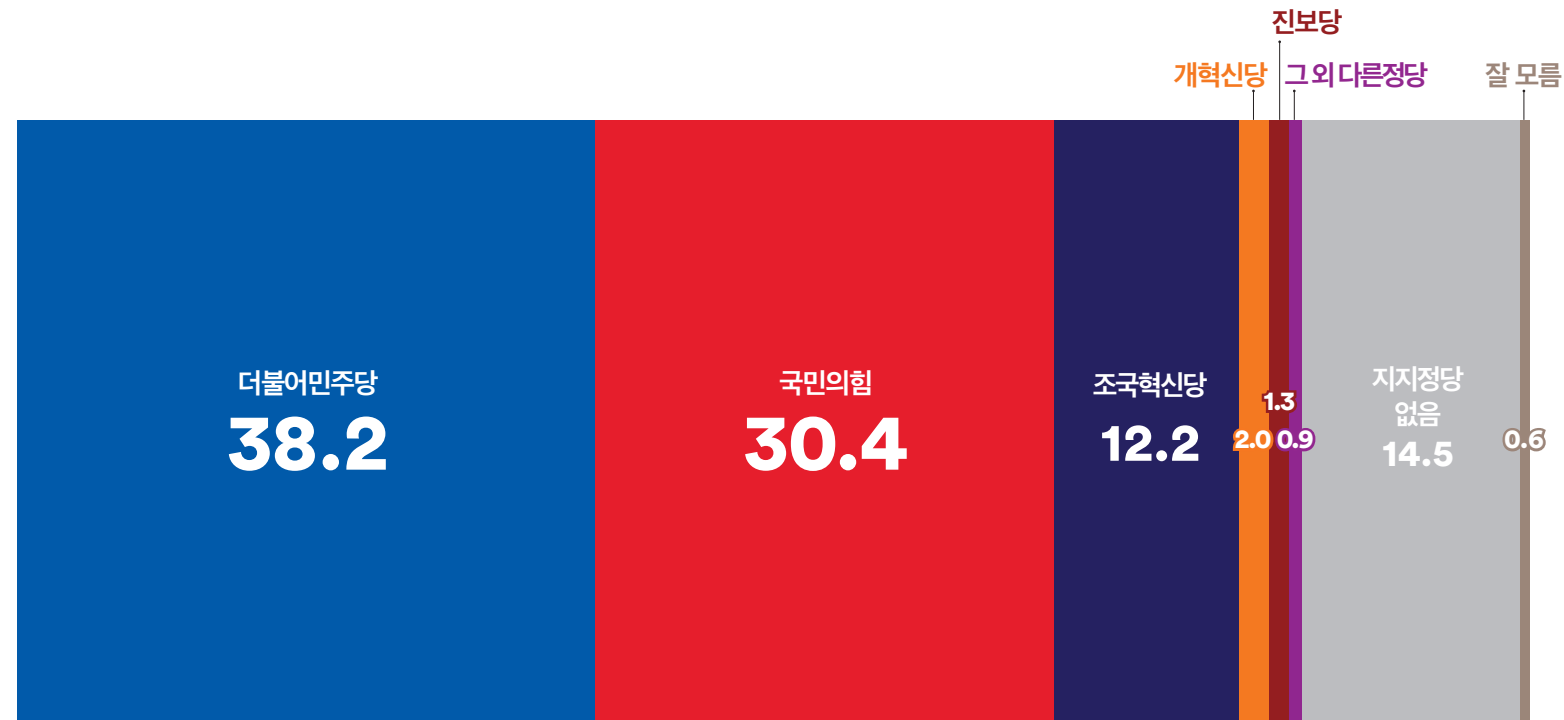


73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0%p 하락, '국민의힘' 0.1%p 상승, '조국혁신당' 1.8%p 상승  
 88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4%p 하락, '국민의힘' 1.1%p 하락, '조국혁신당' 1.8%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7.8%p, ARS 10.8%p(지난주: CATI 9.9%p, ARS 11.1%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0.0%p, ARS 23.6%p(지난주: CATI 20.3%p, ARS 2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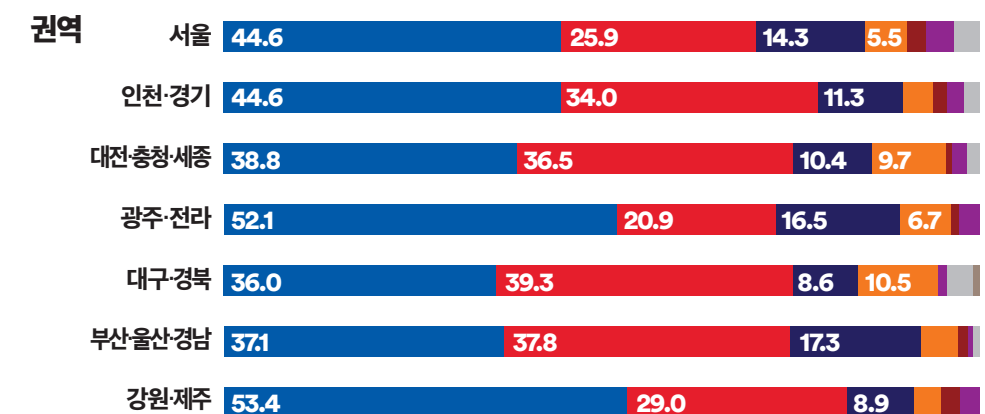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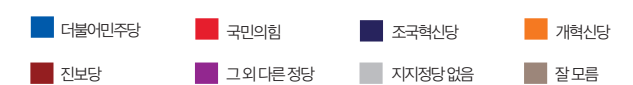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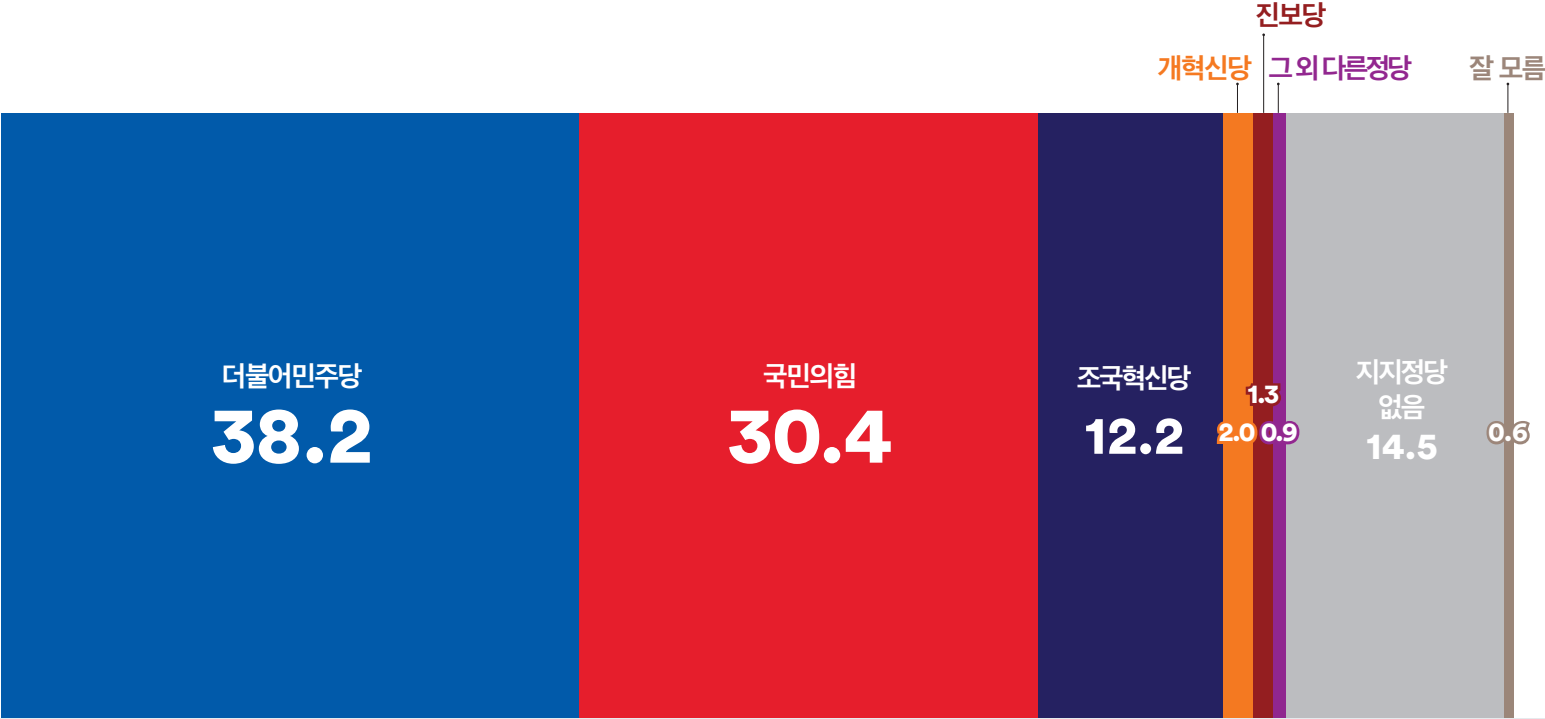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 및 호남권(CATI 서울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및 호남권(ARS PK, 강원·제주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은 TK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범야권 합산 지지율 대비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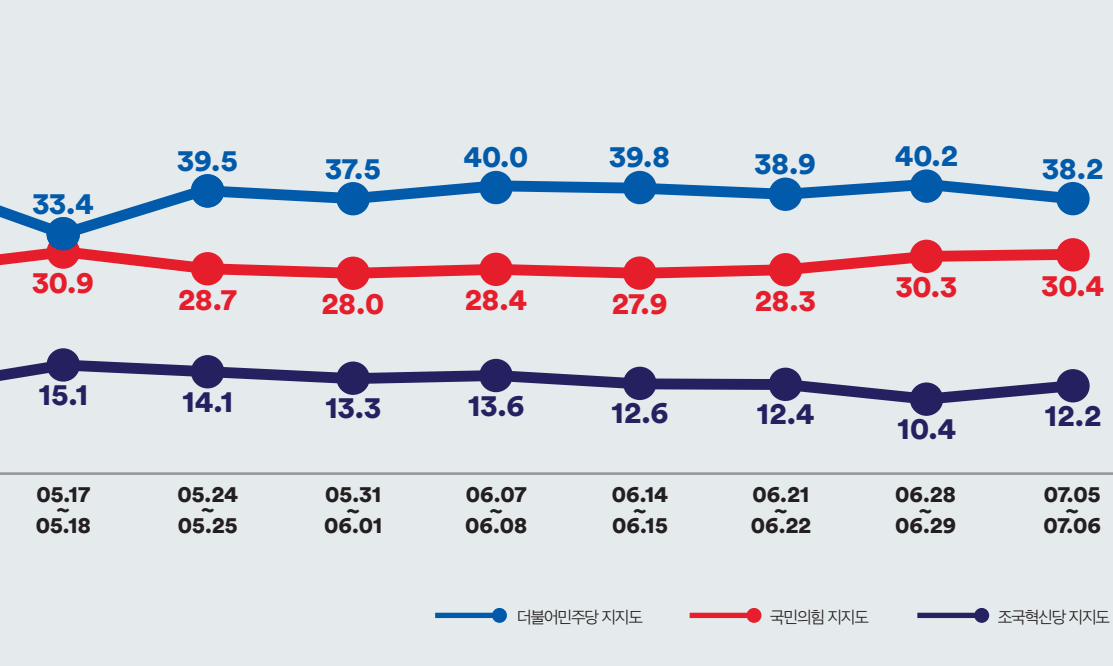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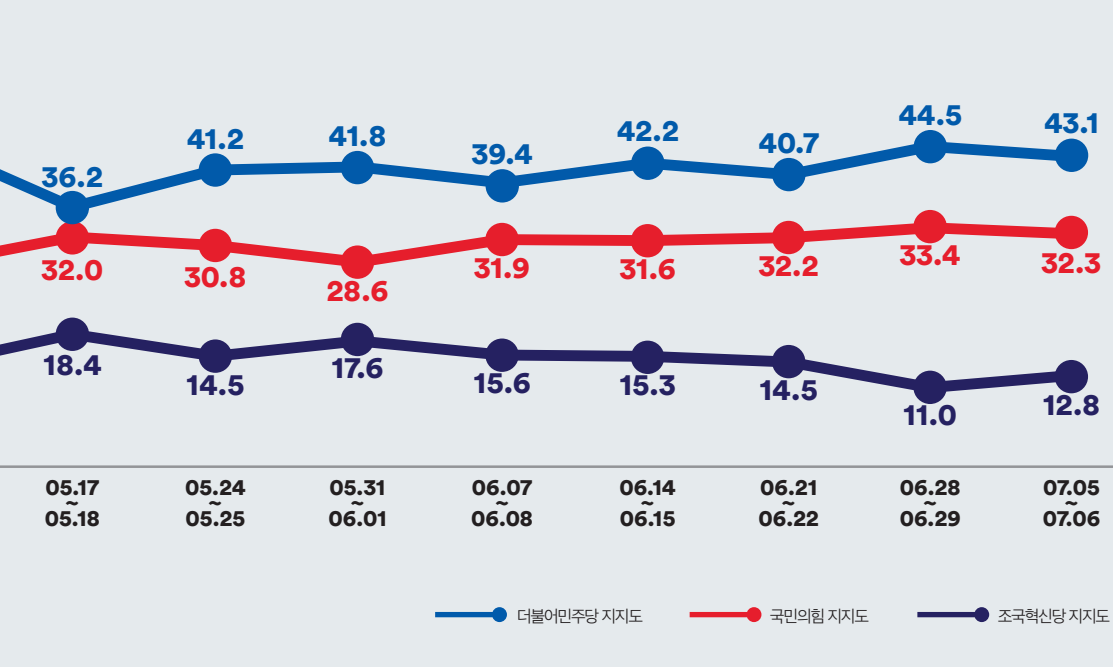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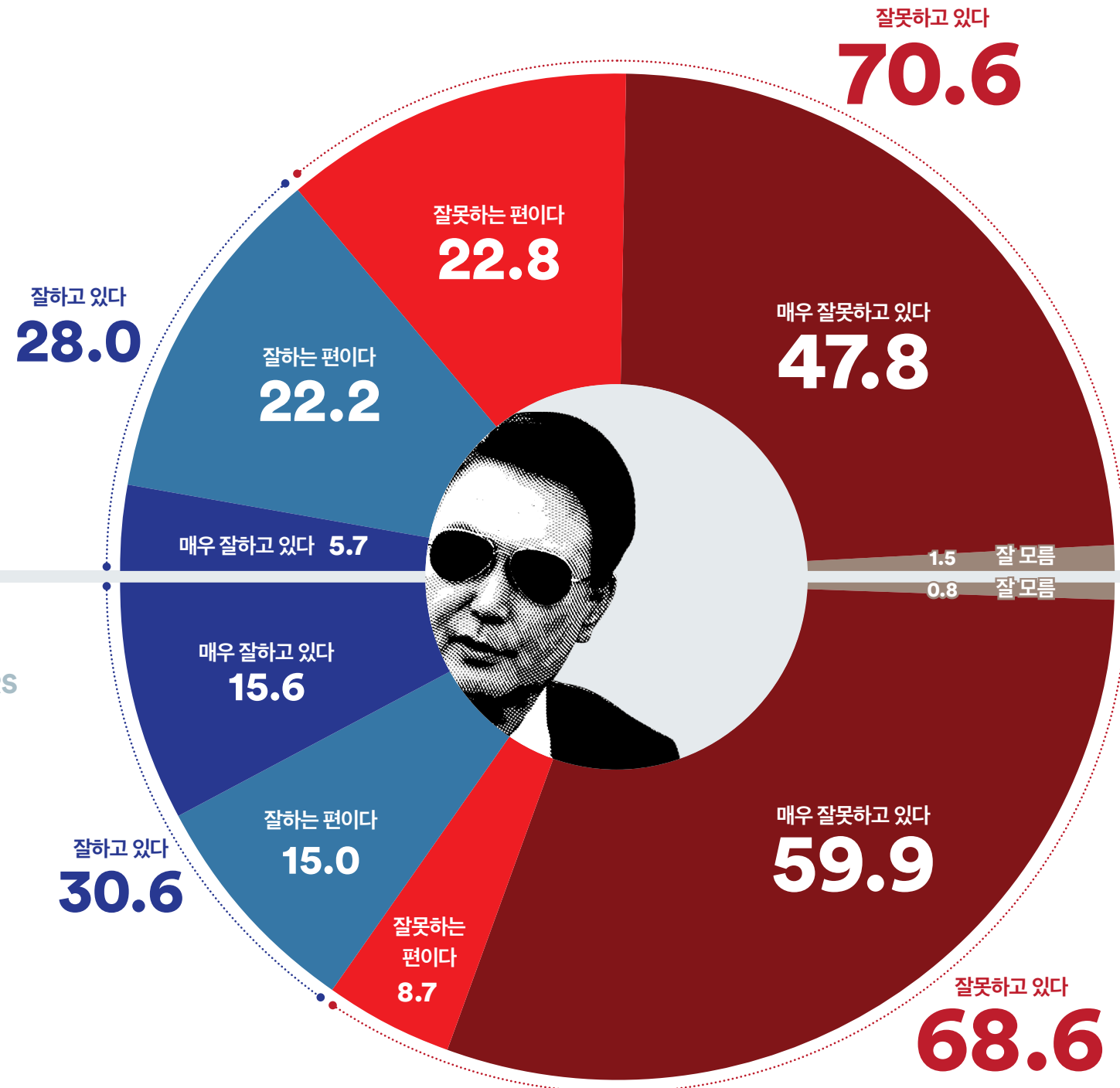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36.8%, ‘국민의힘’ 26.3%, ‘조국혁신당’ 15.5%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힘’ 30.1%, ‘조국혁신당’ 16.6%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6.0%p(73차: 32.1%p), ARS 27.8%p(88차: 19.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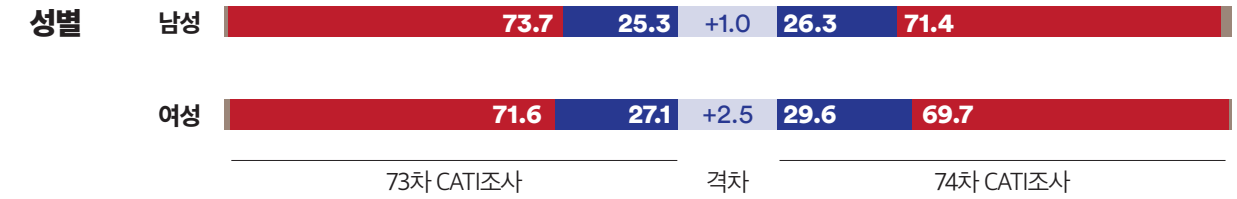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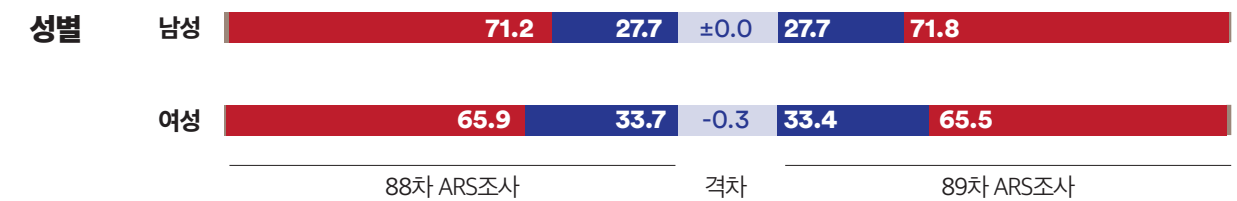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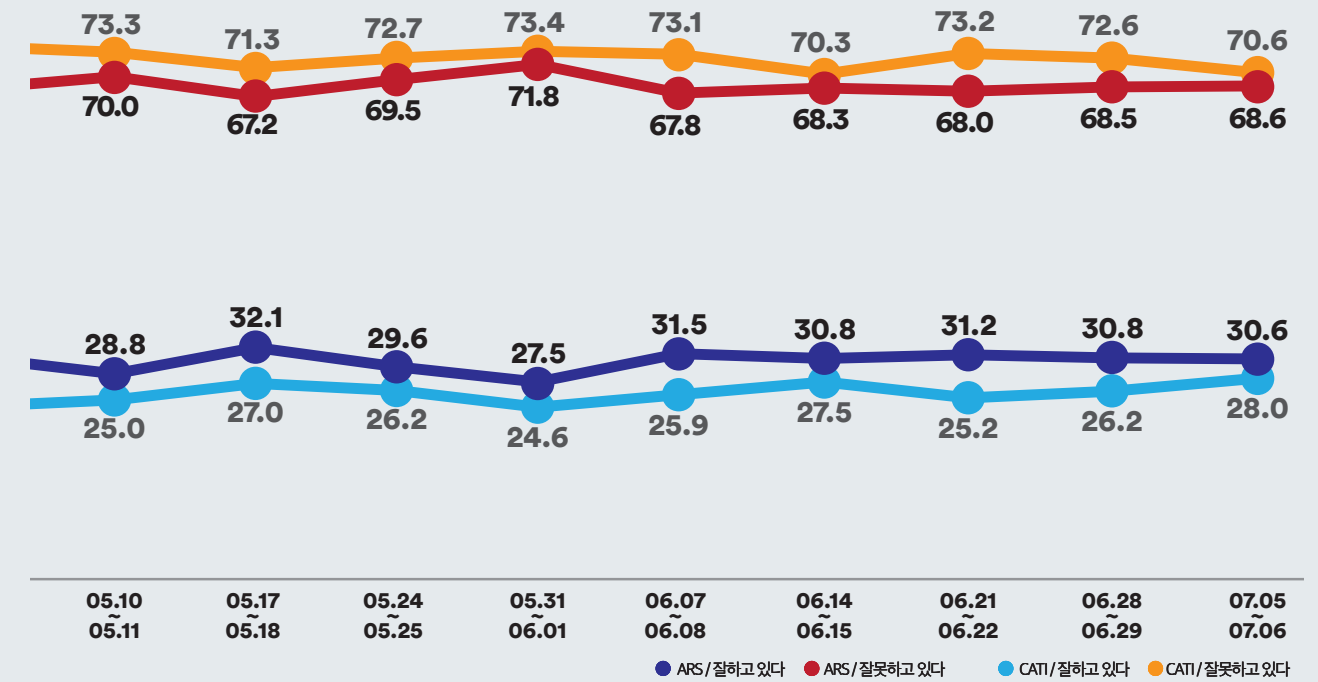
CATI



지난 73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8%p 상승, '부정' 평가 2.0%p 하락(격차 42.6%p)  
 지난 88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0.2%p 하락, '부정' 평가 0.1%p 상승(격차 38.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및 남·녀 모두, 50대이하(ARS는 60대 포함)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0.4%p(지난 조사: 56.3%p), ARS 44.8%p(지난 조사: 3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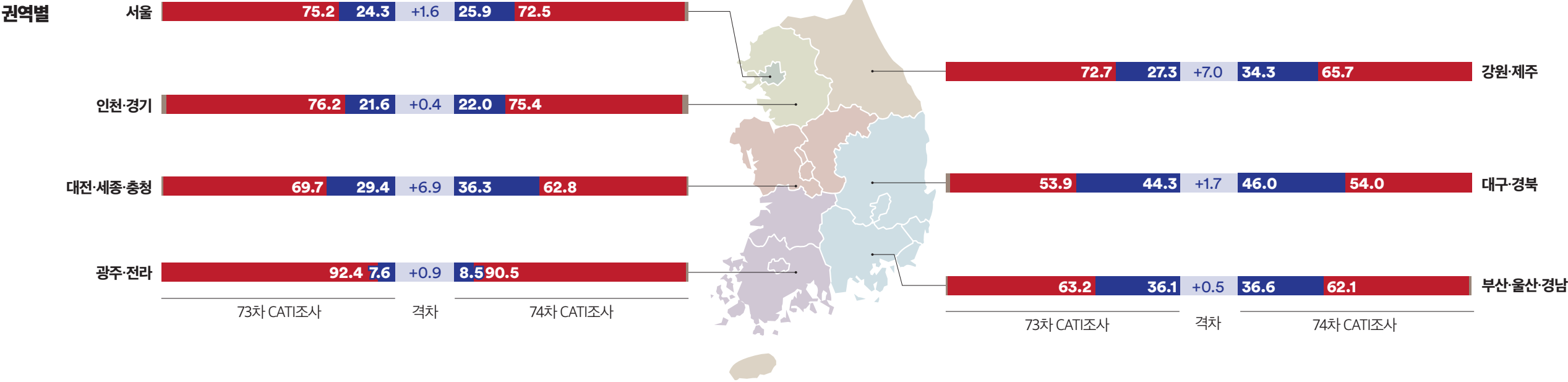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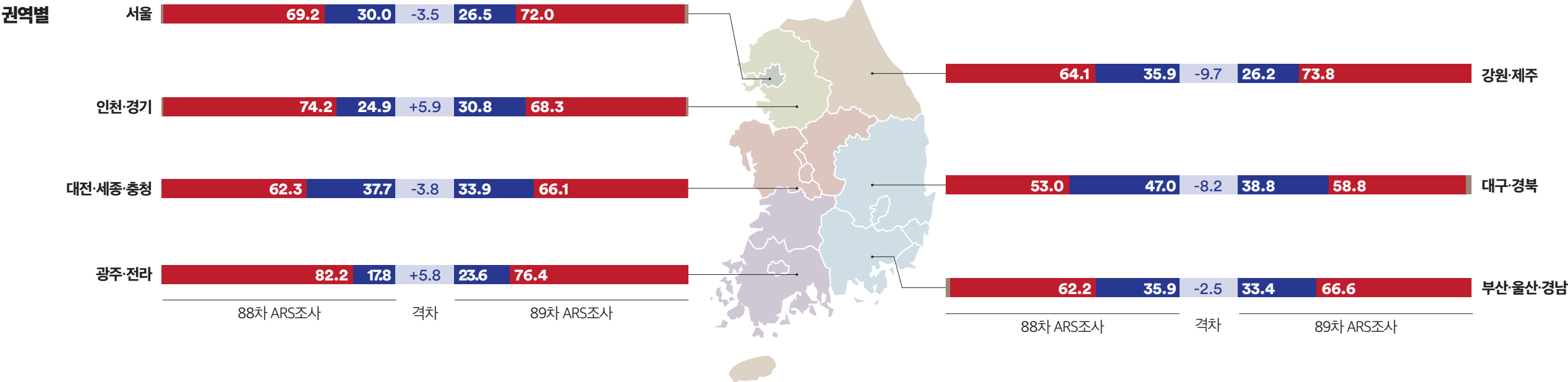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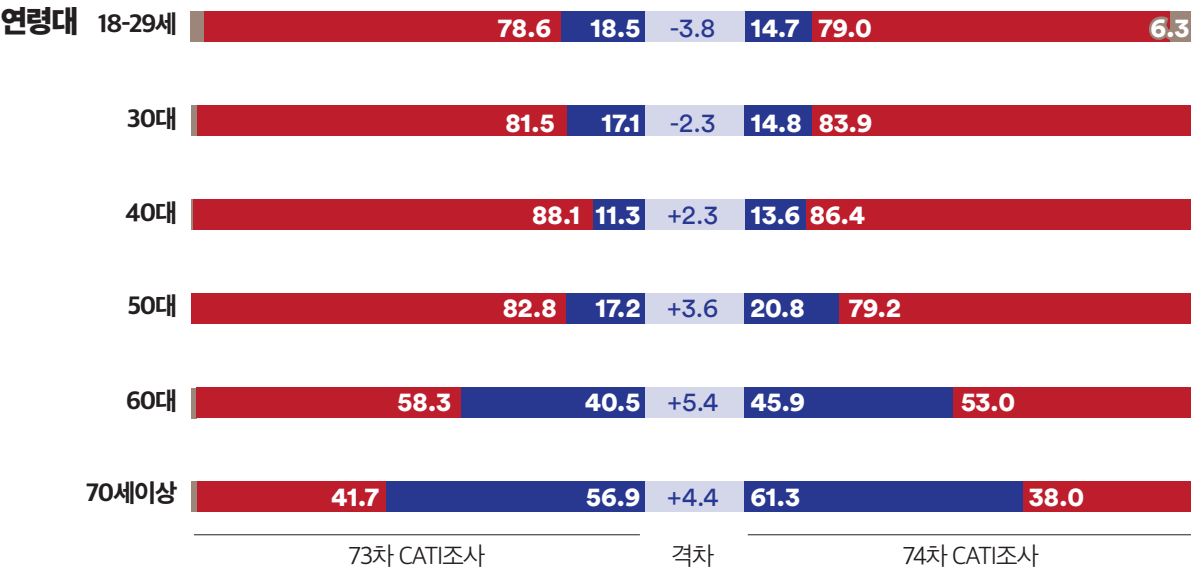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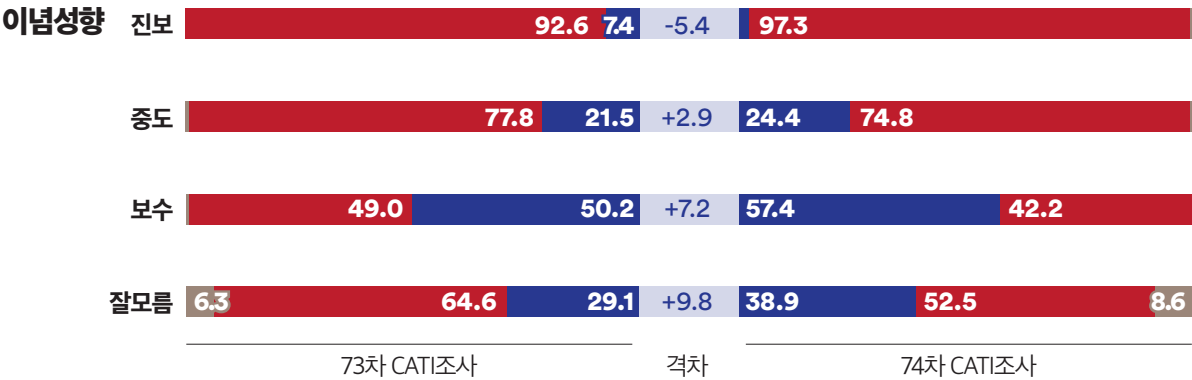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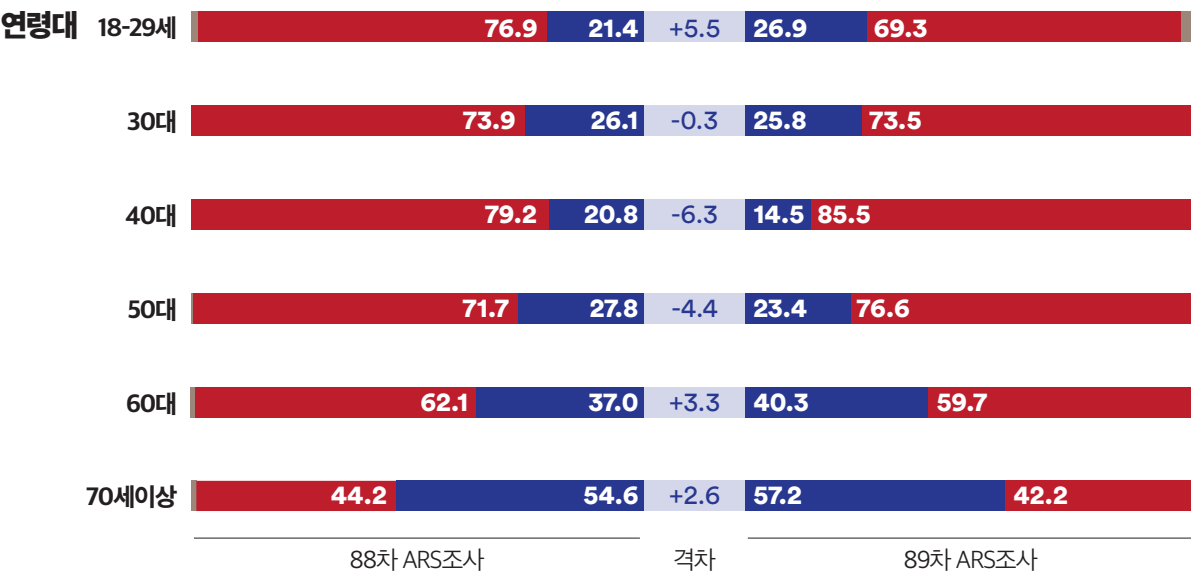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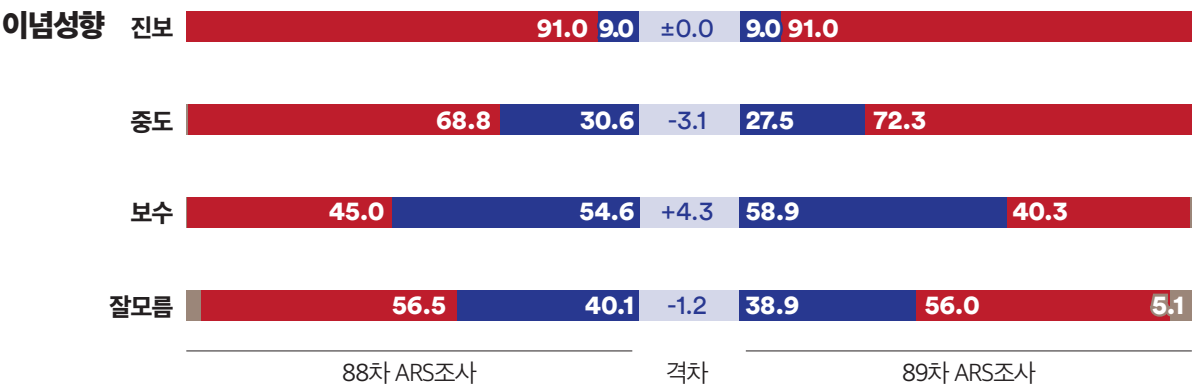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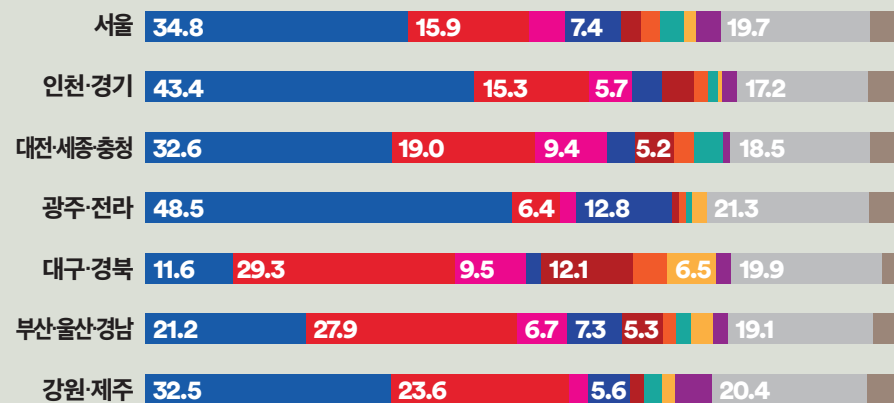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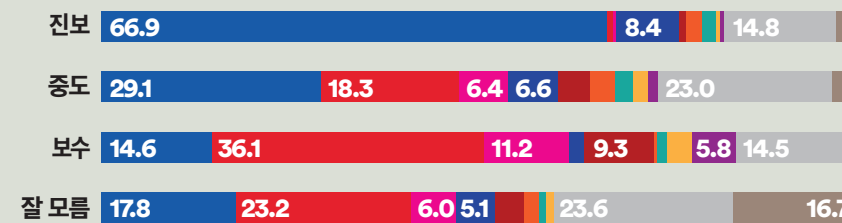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15.8%p)  
TK·PK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69.9%, ‘조국’ 4.0%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3.9%, ‘오세훈’ 11.4%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4.9%, ‘조국’ 28.1%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6.9%, ‘조국’ 8.4% 순  
중도층은 ‘이재명’ 29.1%, ‘한동훈’ 18.3% 순  
보수층은 ‘한동훈’ 36.1%, ‘이재명’ 14.6%, ‘오세훈’ 11.2% 순으로 응답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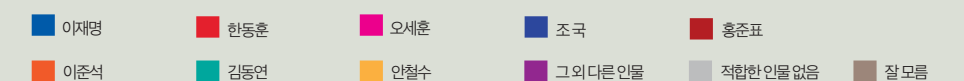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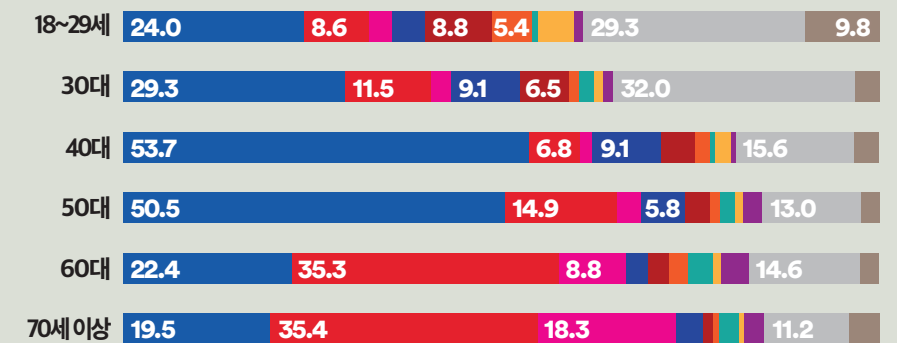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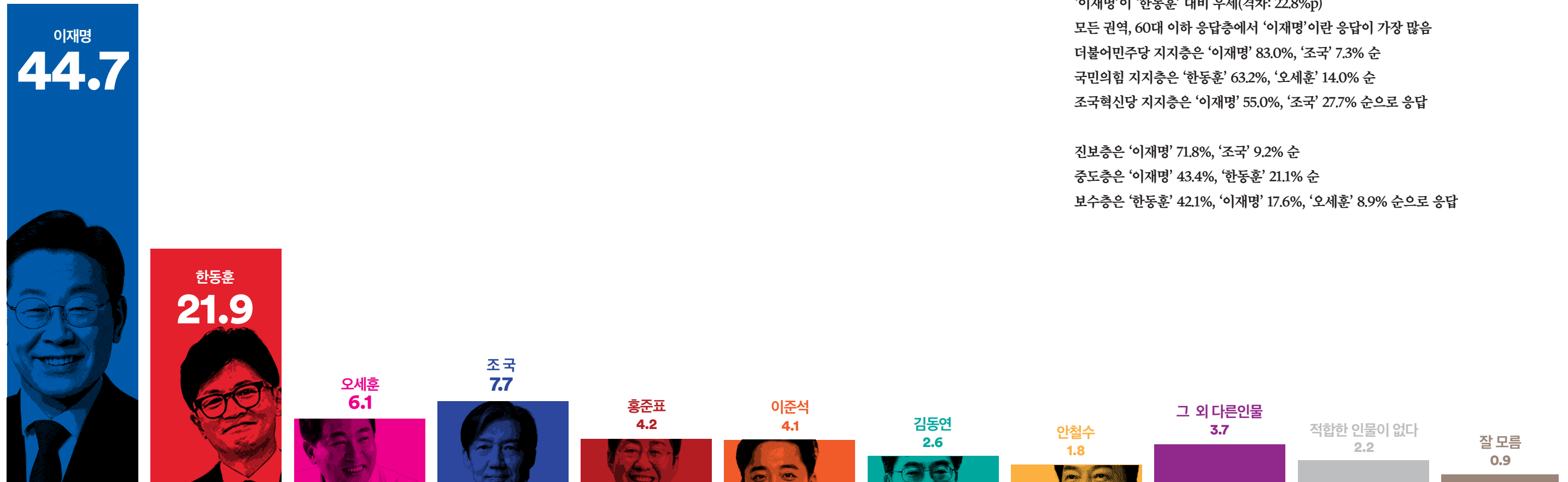


연령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22.8%p)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3.0%, '조국' 7.3%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63.2%, '오세훈' 14.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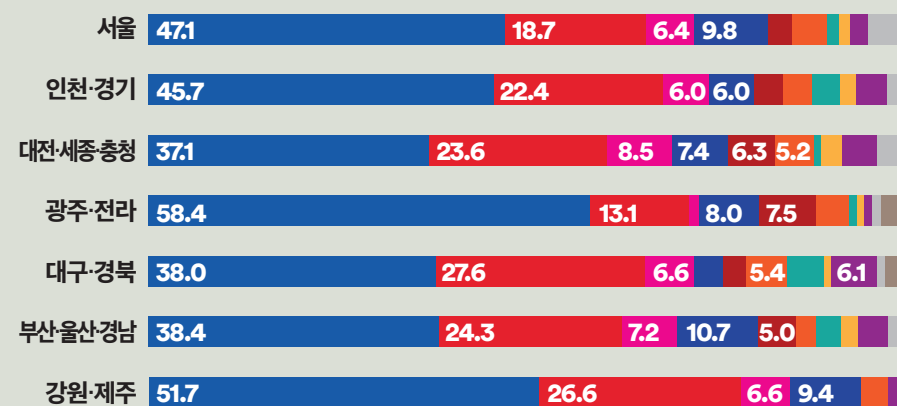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5.0%, '조국' 27.7%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1.8%, '조국' 9.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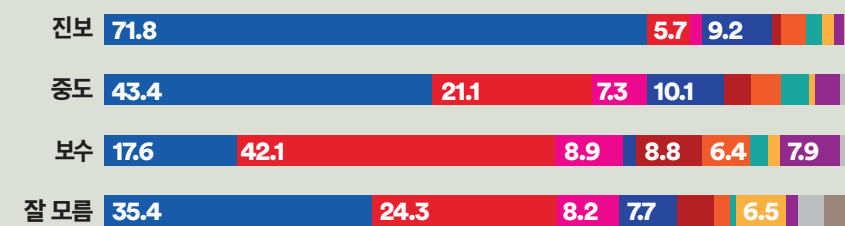
중도층은 '이재명' 43.4%, '한동훈' 21.1% 순

보수층은 '한동훈' 42.1%, '이재명' 17.6%, '오세훈' 8.9%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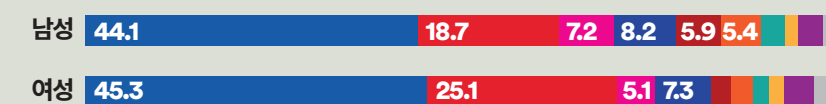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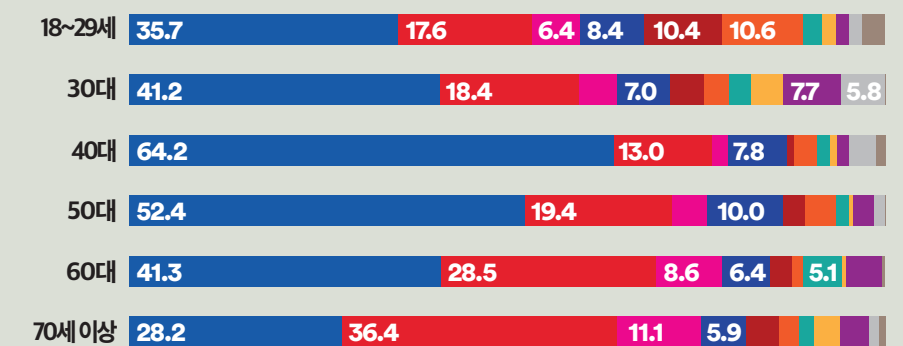
##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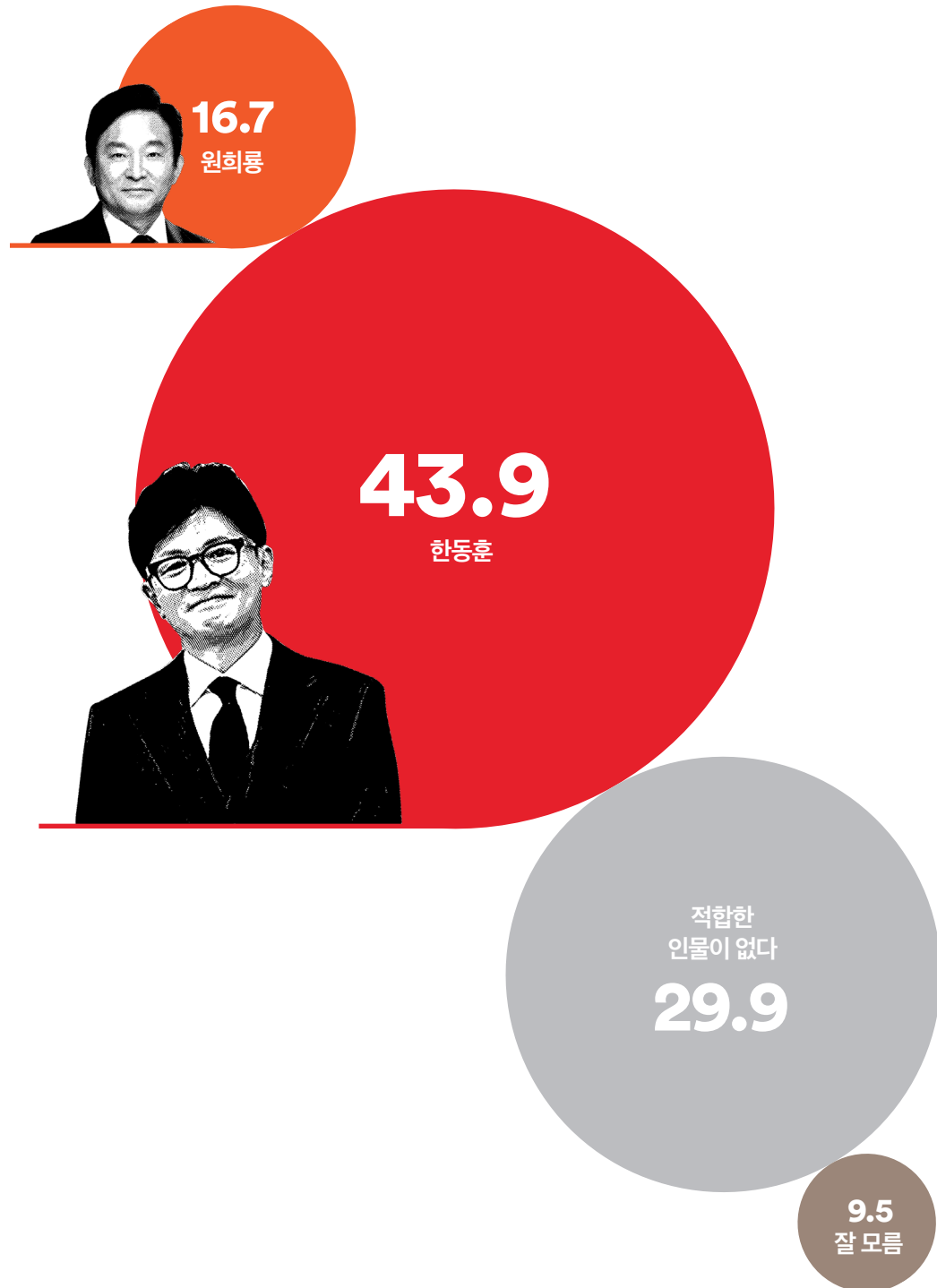
## 연령



■ 이재명 ■ 한동훈 ■ 오세훈 ■ 조국 ■ 홍준표  
■ 이준석 ■ 김동연 ■ 안철수 ■ 그 외 다른 인물 ■ 적합한 인물 없음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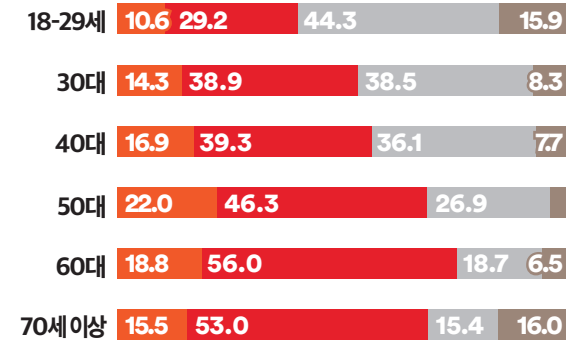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 양자 대결

Q.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와 관련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원희룡 후보에게 있다면,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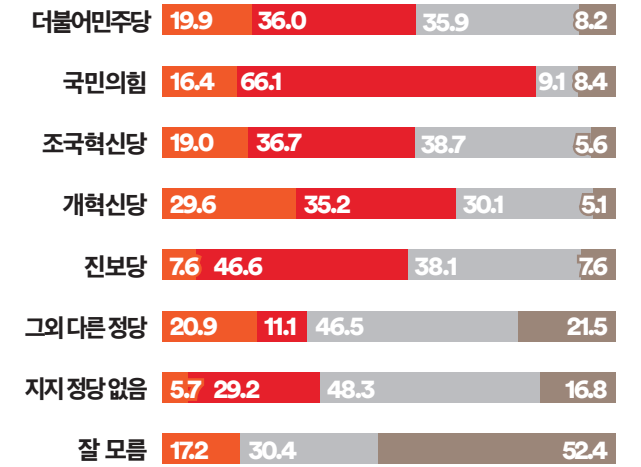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이라 응답, 압도적 우세(응답간 격차: 27.2%p)  
모든 권역 및 연령대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 범진보세력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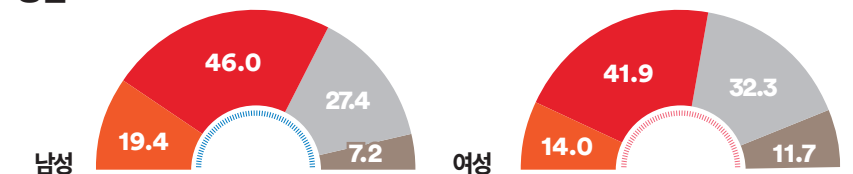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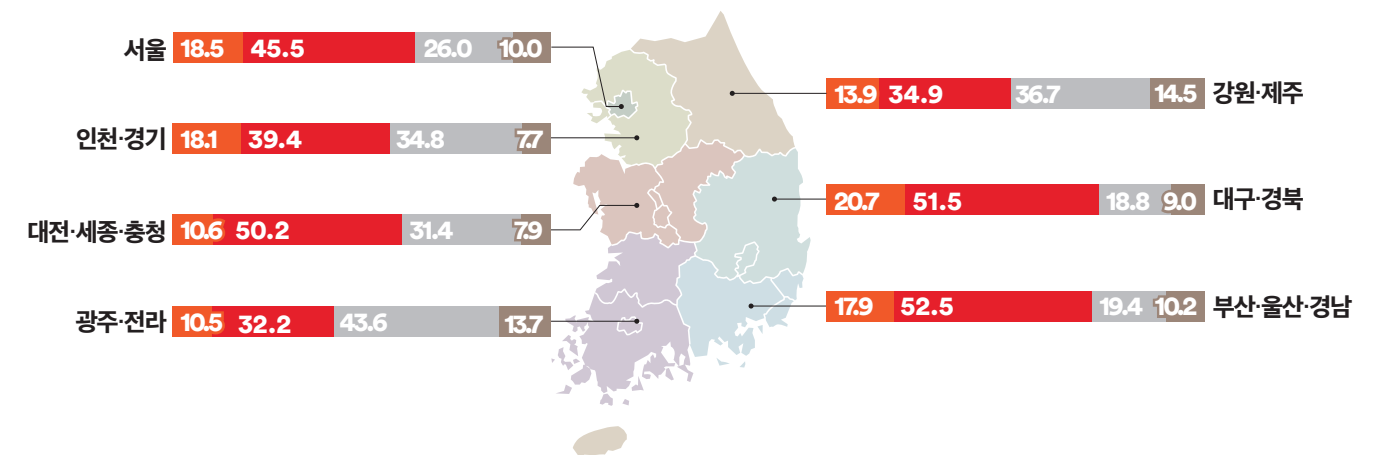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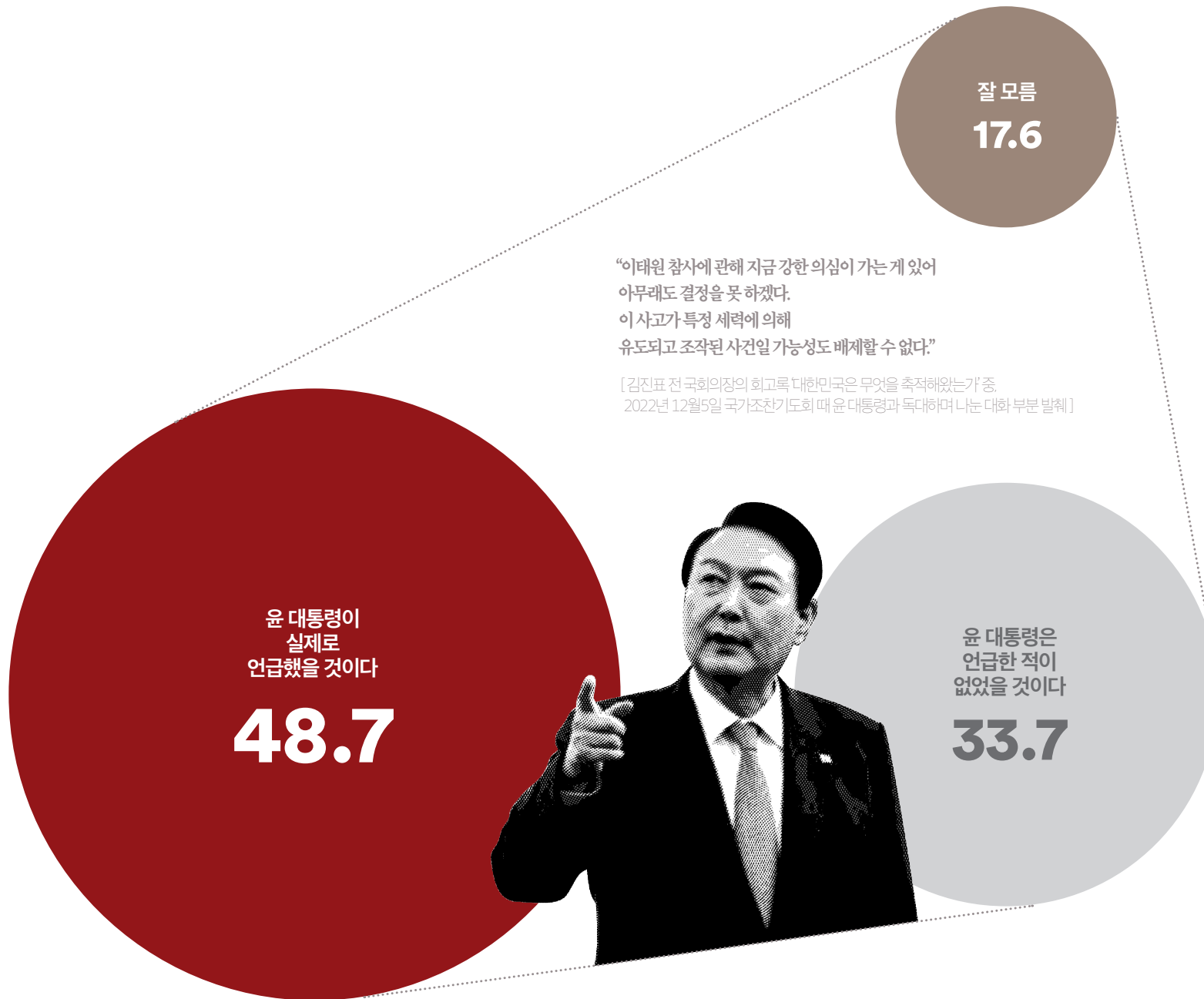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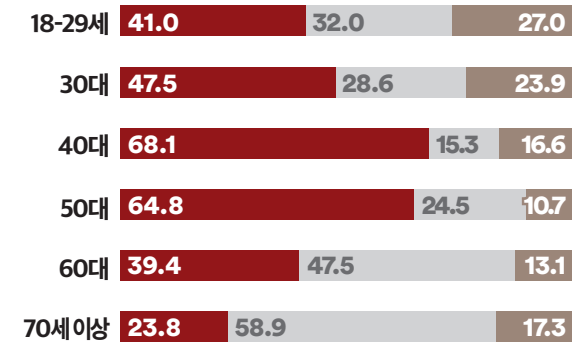


원희룡 한동훈 적합한 인물이 없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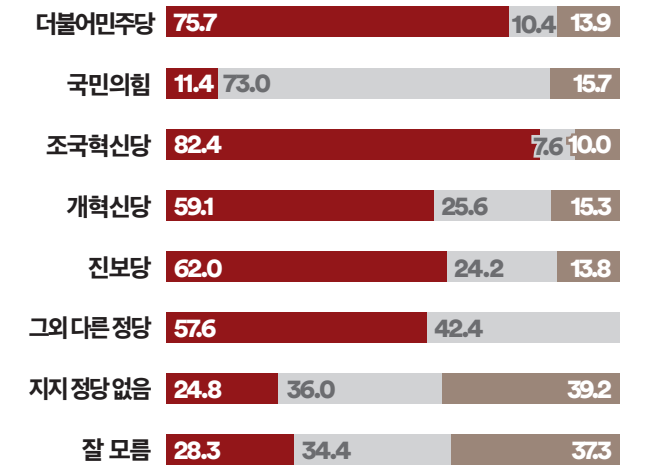
Q.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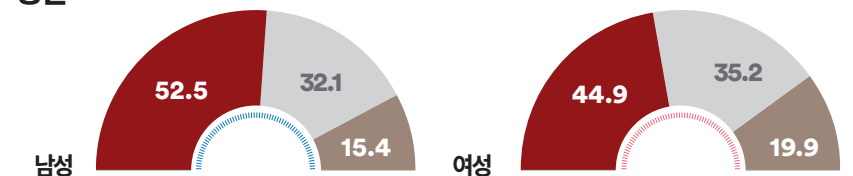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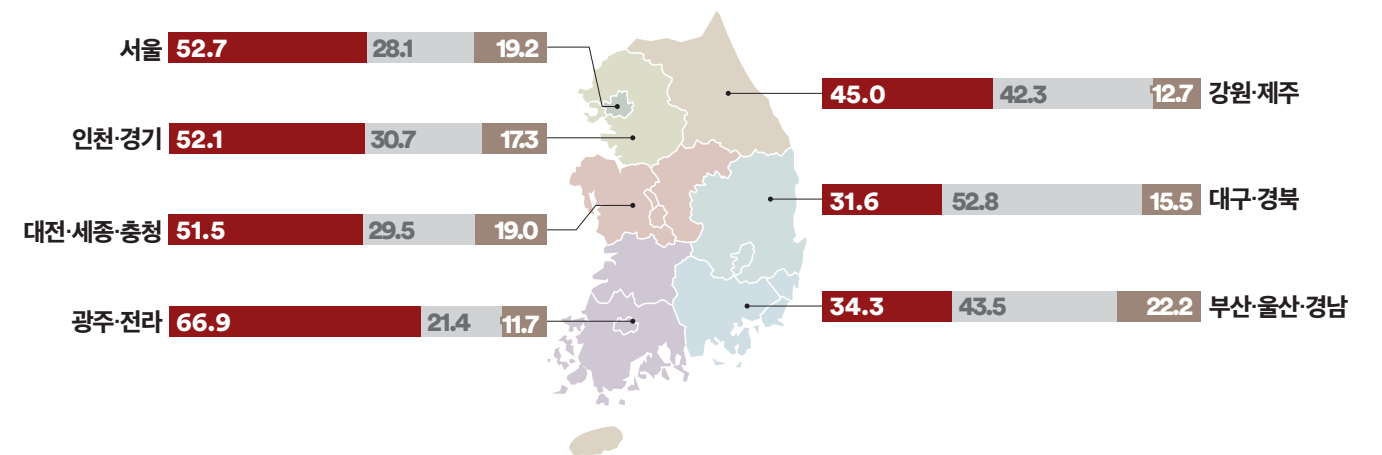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윤 대통령이 실제로 언급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우세(응답간 격차: 15.0%p)  
수도권 및 충청권, 호남권 및 30~50대 응답층,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에서는 ‘언급 했을 것’이란 응답 우세  
TK권, 70세 이상 응답층,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 우세

언급했을 것이다    언급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잘 모름

한·일 관계: 군사동맹 필요성

Q. 국민의힘이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 표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일본과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한다는 건가.”

[7월 2일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 중]

10명 중 5명 이상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불가능하다’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13.6%p)

50대 이하 응답층, 수도권 및 호남권에서는 ‘한일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 및 진보층·중도층은 ‘한일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다’는 응답 우세

60대 이상 응답층,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일군사동맹은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

[6월 2일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제목]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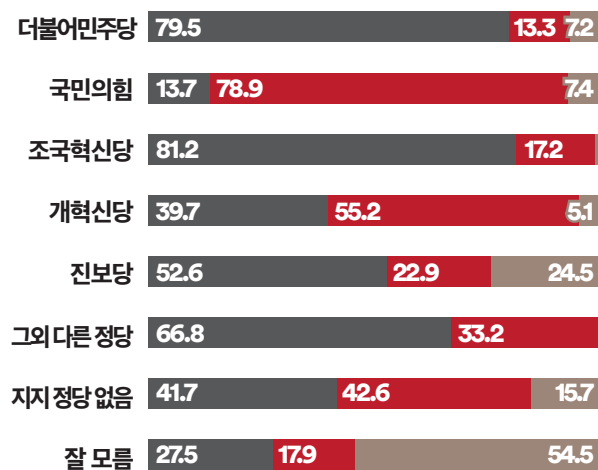
52.7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 동맹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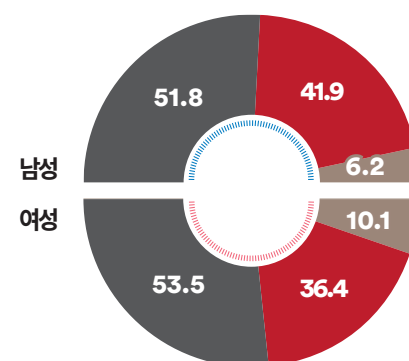
39.1

잘 모름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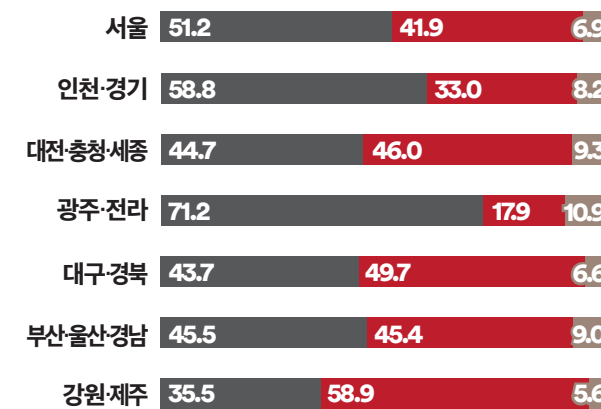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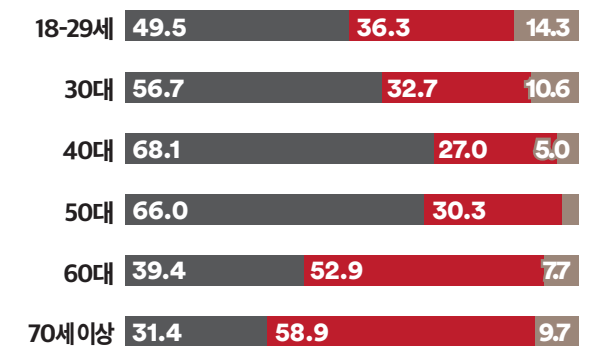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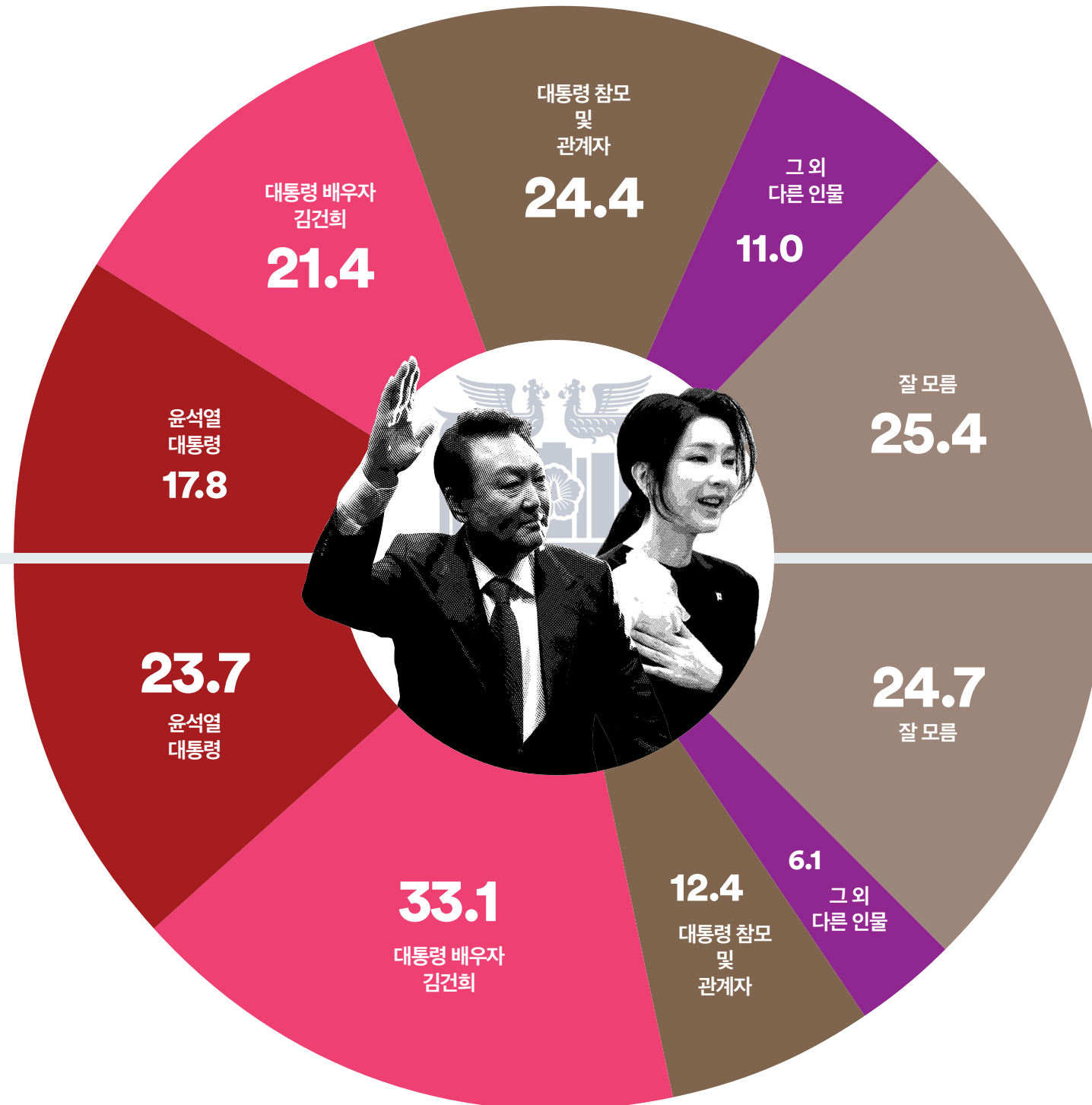


한일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다  
한일 군사동맹이 필요하다  
잘 모름



Q. 대통령실에서 '02-800-7070'번으로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화가 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누가 사용한 번호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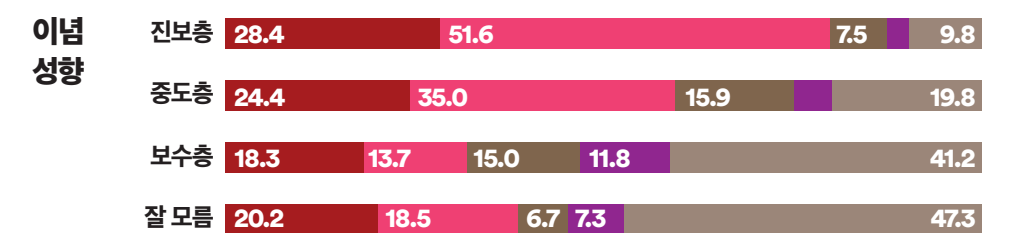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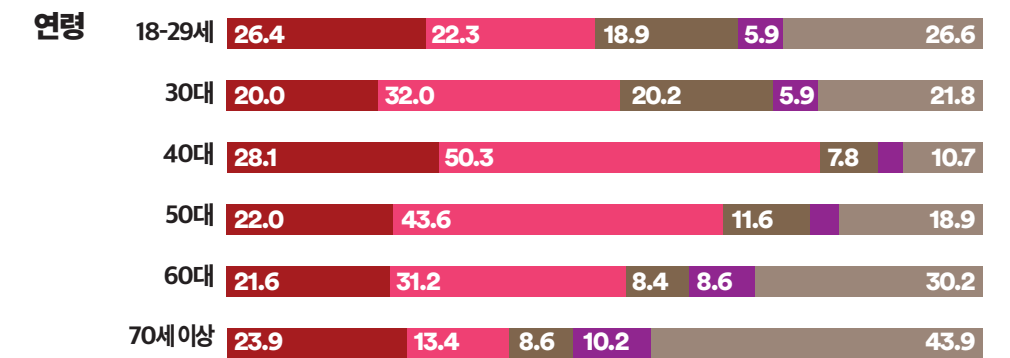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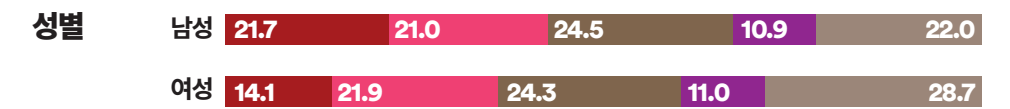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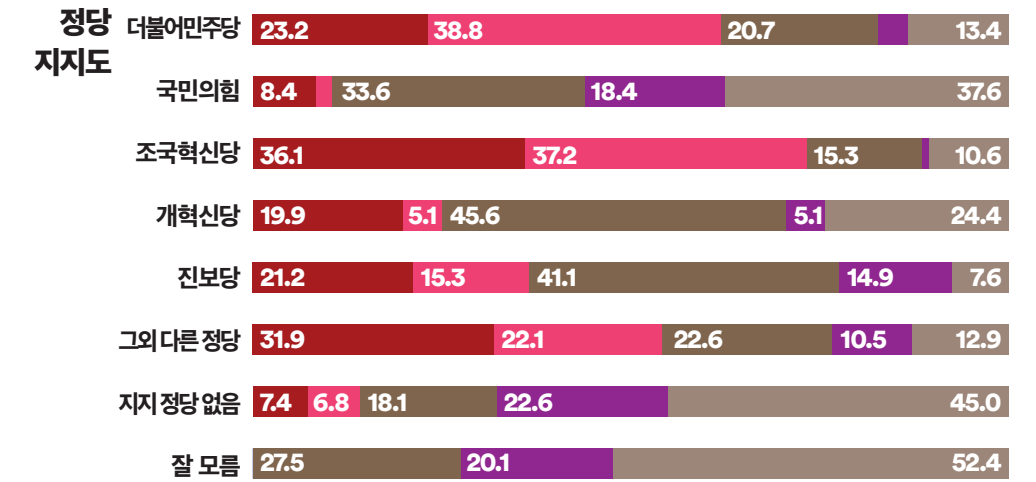
CATI



CATI 조사는 '대통령 참모 및 관계자'란 응답, ARS 조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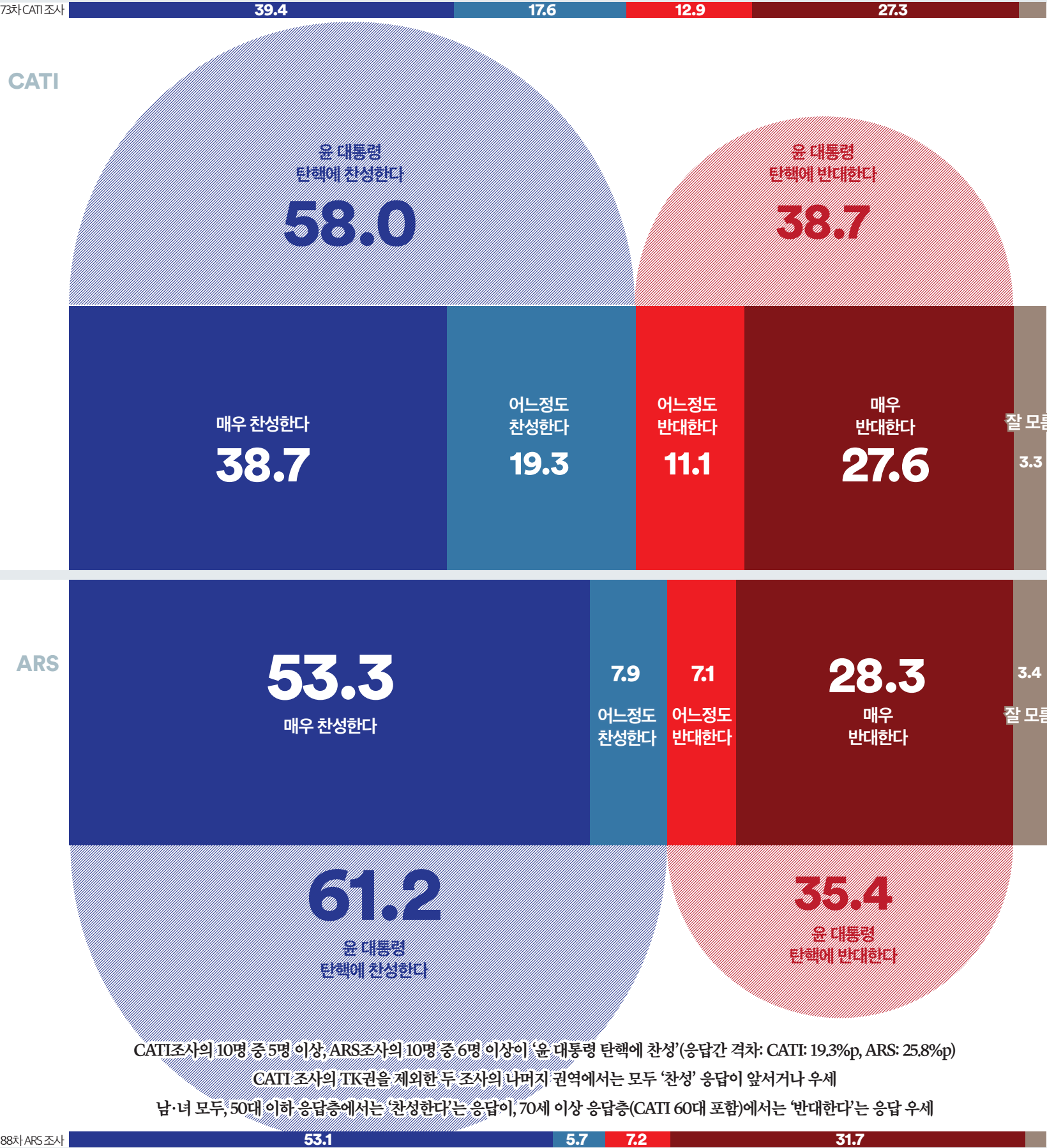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의 응답 유보 비율이 높음 (국민의힘 CATI 37.6%, ARS 53.3%, 보수층 CATI 31.2%, ARS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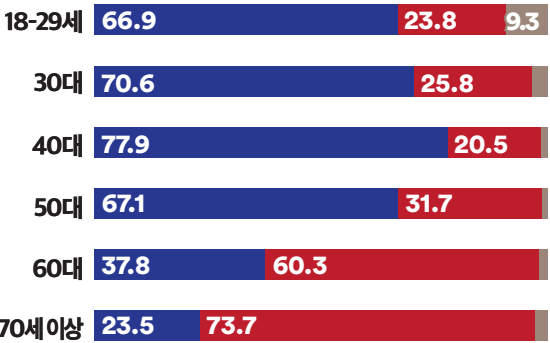


■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배우자 김건희 ■ 대통령참모 및 관계자 ■ 그외다른인물 ■ 잘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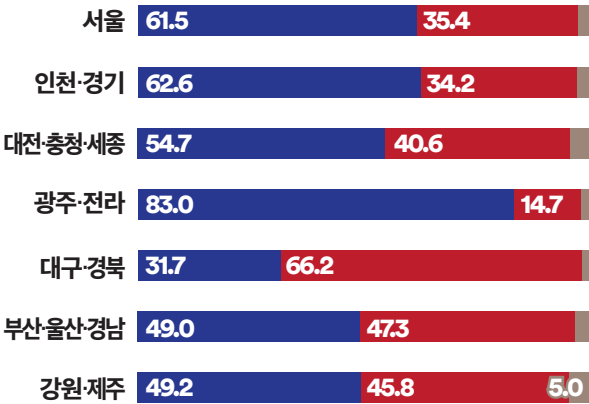
Q.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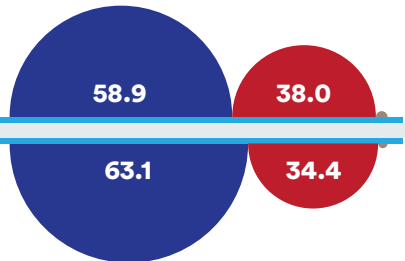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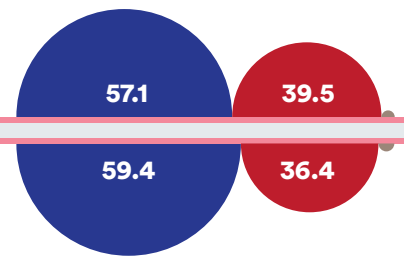
남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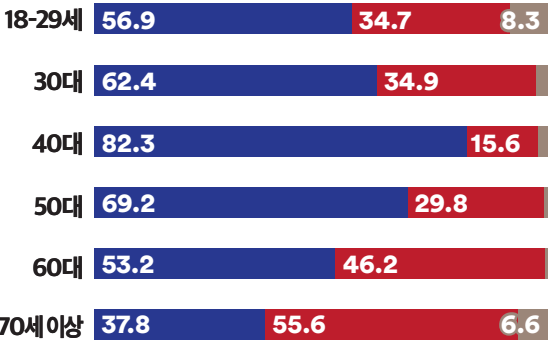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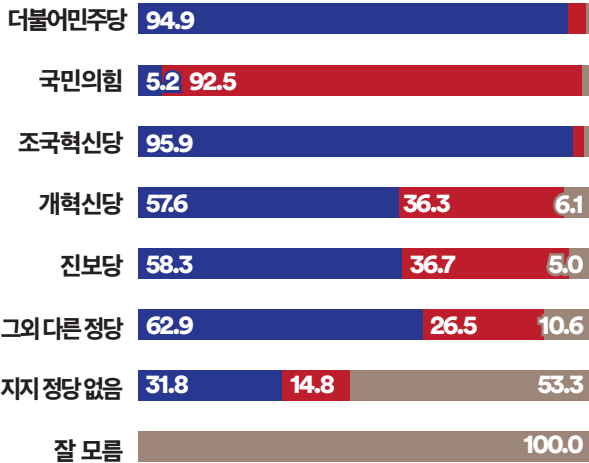
여성



연령



정당지지도



탄핵에 찬성한다

탄핵에 반대한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07\_02

---